**2025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  |  |  |  |  |  |
| --- | --- | --- | --- | --- | --- |
| **이름** | 박예린 | **희소/쌤플러스 ID** | pyl0627 | **핸드폰번호** | 010-9701-1330 |

**●응시정보**

|  |  |  |  |  |  |
| --- | --- | --- | --- | --- | --- |
| **응시과목** | 미술 | **응시지역** | 인천 | **응시횟수** | 1 |
| **임용시험준비시기** | 24년1월시작  (대학원5학기) | **합격 준비기간** | 1 년 1개월 | **시험준비**  **병행여부** | 학업과 병행 |

**● 합격점수**

|  |  |
| --- | --- |
| **1차 합격점수** | 교육학(교직논술) [ 16 ]점 / 전공(교육과정) [ 52 ]점 |
| **최종 합격점수** | [ 160.04 ]점 |
| **가산점** | [ 0 ]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 합격수기 작성**

작성 예시를 참고,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꼭 아래의 문항에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 --- |
| **1. 시기별 교직논술/교육학 학습방법**  1) 1~2월  직강수강. 전공보다 교육학이 더 어려웠던 시점.  당시 교육학 강사님, 장지연 선생님 모두 교육학에 시간 쓸 여유는 초반에만 있고  뒤로 갈수록 전공에 힘써야한다는 말하심. 이를 믿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공부함.  장쌤이 말해준 공부 비율보다 교육학이 더 컸지만 기본이론 때는  전공이 쉽게 느껴져서 교육학 비중이 높아도 그냥 함.  (교육학:전공이 4:6이거나 5:5이기도 했음)  보통 강의를 듣는 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복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1.8배~2배정도 써야지 복습이 되는 느낌이었음.  강사가 강조한 백지에 구조도그리기를 꾸준히 진행.  수첩을 들고다니며 학원을 오고가는 때에 인출 진행.  (생소하기 때문에 한 번 제대로 넣어놔야 다음에 어설프게라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직강에서 조직해준 스터디. 문제 만들어오고 함께 푸는 스터디를 강의 마치면 진행.  2) 3~4월  보통 교육학은 3~4월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1~2월을 다 듣고도 부족함을 느껴서 직강을 계속 수강. 스터디 안함.  학업과 병행하면서 체력부족이 느껴지기 시작.  3) 5~6월  개학 후 힘들어지면서 5~6월은 강의를 안듣고 혼자 공부함.  상담으로 혼자 공부할 땐 1.5~2회독은 하기를 권장받았음.  루틴이 깨지지 않게 하기위해 전공 강의가 없는 아침에  간단한 인출 스터디를 짝으로 카톡으로 진행함.  정해진 범위를 각자 2문제씩 내면 바로 답을 쓰는 방식.  재수생 친구와 함께 했더니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경각심이 제대로 생겨서 괜찮았음.  4) 7~8월  대학원을 다 마치고 다시 직강 수강.  시험문제를 푸는 방식에 적응하면서 허겁지겁 공부 스케쥴을 따라감.  직강에서 조직해준 스터디. 구두인출 스터디 시작.  자신의 단권화 책을 상대가 들고 오답이면 체크해주는 방식.  5) 9~11월  직강수강. 스터디X. 혼자 많은 양을 백지인출 하려고 함.  아침마다 1시간 일찍 도착하면 백지쓰기 인증 스터디(온라인)진행.  막판까지 교육학 점수가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공부시간은 2:8을 유지하려고 함. 막판엔 2보다 더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짐.  **2. 시기별 교육과정/전공 학습방법**  **1) 1~2월**  위상 직강 수강(연팩 결제)  모든 직강은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예습하는 시간 가짐.  1-2월 전공강의는 교육학에 비해 크게 어려움은 못 느낌.  위상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던 '강의가 끝나면 오늘 배운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면 그때 집에가세요.'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함.  강의실이 7:50즘에 닫으면 그 전까지 녹음한 내용 들으면서 놓친 필기, 이해 못한 부분을 재생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함.  학원 문을 닫을 때 까지 못한 날은 집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다 하고 집에감.  집에가면 공부 절대 안 하는걸 스스로 알아서 공부 동선을 계획했음. (P인간이지만)  혼자 이해가 안되는 어려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문했음.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질문시간에 질문 같이 듣기'를 위해서 자리는 되도록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음.  수업 후 자리에서 복습하면서 내가 아는 질문은 이어폰을 끼고 안 듣고,  궁금한 질문만 이어폰 빼서 앞자리에서 들었음.  \*강의 집중력  강의를 들을 때 딴생각 하거나, 졸거나 하는 일이 없게끔 했음.  선생님이 농담하는 시간까지도 나의 수강료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는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함.  여기 앉아서 멍때릴 때 밖에서 돈 벌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웠음.  일정시간 잠을 못자면 다음날 꼭 졸아버렸기 때문에  임용공부 하는 동안은 12시 전에 잠들기 위해 잘 준비시간 알람까지 켜고 생활함.  그렇게 푹 자고 강의를 들으러 간 날은 집중이 잘 됨.  집중이 잘 된 날은 책 필기만 봐도 선생님이 어디를 짚으면서 어떤 표정과 말투로 설명했는지 까지 머리에 그려짐.  \*암기  암기는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외우세요' 하는 것들은 바로 외우려고 함.  특히 장지연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내용들은 다 외우려고 했음.  (다이소 천원짜리 수첩을 사서 들고다니면서 상 수준을 적고 이동중엔 인출을 반복 연습함)  \*필기, 판서  필기는 선생님들이 손으로 적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는 내용들도 모두 받아적음.(특히흐름판서)  강의가 없는 날 복습방법은 선생님들이 칠판에 그려준 흐름 판서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까지 나도 똑같이 백지에 그려보기를 목표로 판서외우기+책 복습하기를 진행.  당시엔 책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흐름을 크게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함.  \*흐름판서 공부했던 방법  1.우선 보면서 따라 그린다. 2.혼자 백지에 외운걸 그려본다  를 반복함.  **2) 3~4월**  **(대학원 병행)**  대학원 마지막 학기가 됨. 막학기에 실기1개, 전공이론1개, 교육학1개 수강.  시간표 계산이 꼬여서 주 1회로+ 온라인강의로 계획한 것이 주 3일 학교수업이 됨.  1시간 40분 수업을 듣기 위해 왕복 2시간 40분을 이동.  계획이 틀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럴 시간도 아까웠음.  시간을 어떻게든 알차게 보내려 갖은 애를 쓴 시기.  \*학업 병행 시 공부방법  전공이론 발표수업: 위상 기본이론 때 어렵다 싶었던 신사실주의로 선택.  학위취득시험: 총 3과목을 선택 중 전공 기본이론에서 약하다고 판단했던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동양화(표현이론)을 선택.  (A4 타이핑 8장 정도를 달달외우고 들어간 것 같음)  대학원에서의 시험, 발표는 어떻게든 임용공부로 연결시킴.  실기수업: 마음 편하게 머리 식히러 가는 시간.  \*이동시간=무조건 인출  교육과정 성취기준 암기 시작.  장지연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인 중등을 우선 외우고 고등을 외움.  중등 성취기준, 내용요소 인출이 오류없이 자동화 인출가능이 한 달째 되었을 때 고등 시작.  비슷비슷해 보여서 중등 외운 게 흔들릴 것 같아서 고등은 노래를 만들었음.  **(노량진 강의)**  토요일= 대학원 수업날.  금요일은 직강을 듣고, 토요일 중 휴강인 날에만 직강 수강,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 인강 보강 신청. (공부하는 다양한 상황 봐주는 희소 감사합니당)  학교랑 병행해서 그런지 전공이론 강의가 너무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선생님이 답이라고 불러주는 내용을 일단 받아 적기는 하는데  스스로가 뭘 받아 적는건지 잘 모르겠단 느낌이 들어 괴로웠음.  위상 선생님이 심화 예습으로 강의전에 책을 2번은 보고오라고 함.  선생님이 하라는건 무조건 해보려고 했음.  2번은 시간이 없어 어려웠고 1번은 꼭 책을 미리 보고 강의를 들으러 감.  +기본서를 심화 진도에 맞춰 회독하면서 기본서 내용도 잊지 않으려 노력함.  \*스터디  3월, 처음으로 스터디 시작.  직강 빠지는 날이 많아 직강 스터디 대신 온라인 스터디 구함.  인강을 2일 듣고 5일동안 강의 내용을 백지에 자유롭게,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써서 밴드에 올리는 인증 스터디였음.  다들 인출 양도 제각기였음.  처음엔 백지 방법을 몰라서 위상에서 준 복습자료 빈칸을 채우기도 하고, 교재에서 중요한 제목만 써놓고 그 아래를 채우는 방법도 쓰고 다양하게 했음.  (2달동안 6명 → 3명 → 2명.. 줄어들게됨. 신경 안쓰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 방장님과 같이 묵묵히 2달 꽉 진행함)  이 스터디 안했으면 인강 진도 놓쳤을 것이라고 생각함.  스터디는 자율성이 보장된 스터디만 찾았음. 빡빡하면 일찍 지쳐버릴 것 같다고 생각함.  (저처럼 자주 자신에 대해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야박한 성향이라면  자율성이 보장된 스터디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초반엔 일관성 있게 꾸준히 공부습관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음.  \*표현스터디  4월부터 표현스터디 시작. 직강을 함께 듣는 같은 대학원 선생님과 구구 표현리스트를  순서대로 매일 4문제씩 답안 작성해서 밴드에 올리는 인증스터디 진행.  (구구쌤 리스트는 여러강사 기반인지 위상만으로는 답 쓸수 없는 것도 있음. 이런건 지엽적인 내용이구나 하고 넘겨버림)  체크리스트로 공부할 때 스스로 답을 찾기위해 기본서를 더 꼼꼼히 회독할 수 있었음.  큰 도움 되었음.  (모든 공부는 오늘 내가 배운걸 내일 인출이 가능할지 생각하며 암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3) 5~6월**  아침에 교육학 강의를 안듣게 되자 늦잠이 시작됨.  늦게일어나면 공부시간도 줄어들길래 어떻게든 아침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루틴을 짰음.  위상 직강을 들으면서 처음 본 모의고사 결과를 받고 제 부족한 파트를 파악함.  솔직히 5~6월 강의도 문제를 풀면서 너무 어려웠음.  장지연 선생님이 초수는 어려우면 보고 풀어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 모르겠는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책을 펼쳐서 답을 보고 씀.(이건 내 지식이 아님. 다른색 펜으로 표시해야함)  어려워도 매번 주어진 시간 내에 모의고사 문제+기출 문제 답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써봄.  직강을 들어도 문풀때 문제 안푸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꼭 다 내손으로 쓰고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함.  \*단권화  본격적인 단권화는 학위취득 시험이 끝나고 6월부터 가능했음.  6월부터 야금야금 심화서 내용을 기본서에 옮기기 시작함.  (기본이론은 빨강,보라색 펜을/ 심화내용은 파란색 펜을/ 윤진쌤 강의는 초록색 펜을)  사용해서 나름 구별하려고 함.  단권화 옮기는 과정은 8월까지 진행, 9월엔 옮기기엔 많은 내용은  그냥 심화서 통채로 기본서 뒤에 스프링 끼워서 합침.  \*스터디  학위취득시험을 앞두고 개념표 만들기 스터디를 구성했음. 3명으로 모아서 진행.  장지연 선생님이 예전부터 강조한 내용인 것 같아서 유튜브에 과거 공부방법 영상을 찾아내서  1)배경 2)내용 3)방법 4)평가 5)대표자 6)영향관계 이런식으로 분류해서 기본서 내용을 간략한 표로 만드는 스터디를 진행.  표 카테고리= 서미. 한미. 동미. 디자인사. 교육론.  표를 만들면 스터디룸에서 모여서 각자의 표를 공유해서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표를 완성한 뒤엔 지난주 표를 백지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때 내가 만든 표를 암기는 하되 맹신하면 안됩니다. 표는 11월까지 수정했습니다.)  \*표현스터디  직강수업 선생님 3명이서 위상교재 기반으로 1인당 5문제씩 아침에 내기(월~토:회판조디공서)  10시까지 문제 풀고 채점후 카톡에 올리는 인증스터디 진행.  이 방법은 막바지에 윤진선생님 상담으로 백지인출 방법으로 바뀝니다.  **4) 7~8월**  문풀강의가 계속됨. 문풀을 들을 땐 (5월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해설을 듣는 순간 빠르게 이유를 적어넣음.  그리고 표로 만들어서 내가 어디를 왜 못하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하는 실수는 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음.  문풀을 들으면서 단권화에 문풀의 개념, 출제내용을 윤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표시함.  (7월8주 A형 11번= 78A11)  문풀 강의는 필기까지 다 마친 뒤에 스캔어플로 스캔. 아이패드에 문제를 모아두고  B4사이즈의 실제크기의 문제지는 인쇄소에서 타공하거나, 클리어파일에 차곡차곡 모음.  8/26에 윤진 선생님과 상담 진행.  문제내는 방식의 표현스터디를 백지스터디로 바꾸라고 권유받음.  표현뿐만 아니라 교육학, 전공이론, 모두 백지인출로 공부방법 바꿈.  **5) 9~11월**  계속되는 백지인출시간.  9월부터는 초등학생 방학계획표처럼 시간별로 계획해둠.  ex) 9~11시는 교육학. 11~12시 교육과정 인출. 1~3시 표현..(대충 이런식)  고르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걸 끌고가야 한다고 들어서  편식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공부함.  이때 허리도 나가고 온 몸이 아파오기 시작함.  졸릴 땐 병원가서 영양주사도 맞고, 점심은 고기류로 든든히 잘 챙겨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먹음.  막판엔 X파일, 마중물 모두 보고 감.  그럼에도 실수가 많았고 전공점수가 같이 위상 들은 분들에 비해 크게 높다고는 생각 안함.  **<다른 날 작성해서 말투가 다릅니다>**  **3. 2차 시험 학습방법(면접, 수업실연, 실기 등)** 1) 교직적성 심층면접  48.13/50  1차시험 전에 미리 2차 위상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장지연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태도, 말하는 방법 등은 1:1 피드백 때도 교정받고 스터디원들에게도 이 방법을 잡아주면서 했어요.  첫 질문의 답이 중요한 것, 어떤 질문이 나올 땐 대답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저희는 실기준비를 하느라 면접이 타교과에 비해 내용에서 부실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분들의 태도를 잘 봐주었고, 다른 교과 쌤들은 제 내용을 많이 보완해주셨어요.  저는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마지막 까지 제가 중?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스터디하는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점수 결과를 보면 장지연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면접관들과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항상 좋았지만 태도가 약간 아쉬웠던, 본인영상은 절대 촬영하지 않던 타교과 선생님은 면접에서 너무 크게 빠져서 이번에 안됐어요..  스터디)  면접은 보통 타교과와 함께 준비한다고 들었어서 저도 타교과와 진행을 했습니다.  1차시험 본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한마음 카페에서 <평가원, 교과, 노량진, 대면, 면접>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터디를 찾습니다.  댓글을 달아도 연락이 안오길래 그냥 제가 짜기로 마음먹고 스터디룸을 우선 모두 결제합니다.  제가 미술학원 가는 시간 외인 [평일 2회. 9~12시]로 1차합격자 발표 일정까지 결제를 다 한 다음에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토요일 시험끝. 일요일 카페 검색. 월요일 스터디룸 결제, 화요일 스터디원 모집글, 수요일 카톡방파기+오티 논의)  올리자마자 빠르게 마감이 되었고, 교과는 겹치지 않게, 초수,n수 다양하게 모집했습니다.  (초수만 있으면 안돼요.. n수 선생님 경험과 위상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잡아갔습니다)  1합 발표 후엔 다들 지역에 맞춰서 흩어져서 저도 인천지역으로 새로 들어갑니다.  합격 발표 하자마자 한마음 카페를 뒤진건데도 5시간만에 겨우겨우 구했어요.  1합 발표후엔 늦어지면 스터디 구하기 특히나 어려워집니다!  무조건 빨리 해야 성실하고 좋은 스터디원 만날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2) 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17.31/20  수업실연은 강의를 들어도 아리송 했고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잡아나갔습니다.  1합 발표 전까진 위상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했고  1합 이후엔 카페에서 구했는데 위상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른 학원 분도 섞여있었어요.  초수는 저 뿐이라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이후엔 지역으로 한 번 더 흩어집니다.  매번 스터디를 새로 구하기가 어렵기는 했는데 되려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하시는 스터디원을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면접도, 수업실연도 항상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나만보기로 업로드해서  폰 용량 확보하고, 끝나면 스터디원들이 피드백 해준 내용을 보면서 영상을 다시 한 번 돌려봤습니다. 모든 연습은 영상 녹화를 했어요.  많이 부족했는데 저 정도 점수면 나름 많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수업실연은 꼭 칠판이 있고, 칠판이 좀 큰 스터디룸에서 연습해야 판서연습도 가능합니다))  3) 전반적인 학습 방법이나 꿀팁  2차는 잠을 줄이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실기는 주4회(소묘2일, 수채화2일) 학원 최소기준으로만 진행했습니다.  학부가 실기로는 뒤지지 않는 서양화과였어서 실기보단 면접과 수업실연 걱정이 컸어요.  2차 토탈 90점만 넘기자 가 목표였습니다.  면접스터디가 없는 날엔 수업 실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칠판이 있는 스터디룸의 남은 시간(주로 오전 7시~8시)에 꾸역꾸역 가서 영상촬영.  그리고 바로 위에 스터디카페를 등록해서 2차때도 1차준비 때처럼  그냥 노량진에 살다시피 했어요.    **4. 자신만의 공부방법(어려운 문제 대비법, 슬럼프 극복, 체력관리 등 수험생활 전반의 TIP)**  공부하는 내내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받고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12월에 위상에서 진행하는 설명회 때 받은 책자가 아주 도움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양한 합격후기를 접했고  그 중 저와 비슷한 성향, 비슷한 상황에 있던 초수합격자 후기를  콕 집어서 공부하다가 확신이 안들 때, 불안할 때, 자주 읽어보았어요.  다른 블로그 후기 글, 희소 합격자 영상을 불안할 때 마다 보면서  그들과 같은 시기의 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고,  인스타나 유튜브로 공부법 영상(이윤규 변호사)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우선 실행했습니다.  심할 땐 3일에 한 번, 덜할 땐 3주에 1번은 본 것 같네요.  **5. 합격에 도움이 된 선생님과 강의/교재 활용 후기는?**  위상 선생님의 표현 강의와 자세한 제작과정 설명이 이해가 쉬웠습니다!  장지연 선생님의 공부방법 상담과 상수준 안내로 중요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서 효율성 좋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선생님의 쪽집게같은 서양미술사 문제풀이와 미키사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키사전은 9~11월 막바지동안 들고다니면서 전철에서 자주 보았어요.  **6. 희소/쌤플러스 선생님(강사)께 감사의 편지 쓰기**  수험생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신 합격할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따라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방법 상담을 신청하면 항상 답을 찾아주시고 걱정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강의 해주세요ㅜㅜ  **7. 합격에 도움이 된 희소 학원 서비스는?**  6월에 했던 현장 모의고사! 저처럼 코스모스 졸업이라 현장경험 전무할 선생님들은 꼭 미리 체험하시면 크게 도움 될 겁니다!  **8.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공부를 하는 동안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연초에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는 방법, 스트레스 푸는 방법, 건강관리 계획 등..  나 자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일찍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공부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선생님들이 하라고 한 방법을 전부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60~80% 정도는 실천한 것 같아요.  못한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땐 첨삭지를 들고 공부방법 상담을 가세요!  강사님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칸을 넘게 작성하셔도 무방하오니 자유롭게 작성 해 주세요~